

2011년 가을 학기
전 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

메시지 39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우리를 거룩함에 있어서 나무랄 데 없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심

성경: 살전 3:13, 5:23-24

- I.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을 하려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시어 거룩함에 있어서 나무랄 데 없도록(거룩함에 있어서 잘못이 발견되지 않게) 해 주셔야 한다—살전 3:13.
- A. 마음은 사람의 속부분들의 집성체, 사람의 주된 대표, 사람의 동인(動因)이다.
1.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혼—생각과 감정과 의지(마 9:4, 히 4:12, 요 14:1, 16:22, 행 11:23)—과 우리의 영의 한 부분—양심(히 10:22, 요일 3:20)으로 된 구성체이다.
 2.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과 그 상태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의 상태와 유기적으로, 내재적으로, 분리할 수 없이 연관되어 있다.
 - a. 영의 훈련은 우리의 마음이 적극적일 때에만 이뤄진다. 사람의 마음이 냉담하면 영은 그 속에 갇혀 그 역량을 나타낼 수 없다—마 5:3, 8, 시 78:8, 엡 3:16-17.
 - b. 혼은 인격 자체이지만, 마음은 행동하는 인격이다. 마음은 우리의 온 존재의 동인(動因), 행동원이다.
 - c. 우리의 신체의 활동과 행동은 우리 신체의 심장에 달려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 생활, 우리가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정신적 심장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 B. 마음은 생명의 입구와 출구이며, 생명의 ‘스위치’이다. 마음이 올바르지 않으면 영 안에 있는 생명은 방해 받고, 생명의 법이 우리 존재의 각 부분에 이르도록 아무 방해 없이 자유롭게 작용할 수 없어, 이 큰 능력이 우리의 작은 마음에 통제를 받는다—잠 4:23, 마 12:33-37, 비교 겔 36:26-27.
- C.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타고난 출생에 따라 우리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주님과 관계에 있어서 변하기 쉽다—비교 딤후 4:10, 마 13:3-9, 18-23.
- D. 타고난 인간 생명에 의하면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은 없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바뀌므로 전혀 믿을 것이 못 된다—렘 17:9-10; 13:23.
- E. 우리의 마음은 변하므로 나무랄 것이다. 변치 않는 마음이 나무랄 데 없는 마음이다—시 57:7, 108:1, 112:7.
- F.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단번에 영원히 된다. 그러나 마음은 변하기 쉬우므로 우리의 체험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계속 새로워진다—겔 36:26, 고후 4:16.
- G. 우리의 마음은 변할 수 있으므로 거룩하게 하시는 영에 의해 계속 새로워져야만 거룩한 상태, 하나님께 성별된 상태, 하나님께 점유되고, 소유되고, 하나님으로 적셔진 상태에서 견고하게 되고 건축될 수 있다—딤후 3:5, 롬 6:19, 22.
- H. 교회 생활을 위해 거룩한 생활을 하는 ‘거룩한 이들’이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처리함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의 내적 운행에 협력해야 한다—히 2:11, 시 139:23-24.

1.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움을 원하신다—겔 36:26, 마 13:4, 19, 고후 5:14, 비교 출 32:9, 렘 48:11.
 2.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기를 원하신다—마 5:8, 시 73:1, 25, 렘 32:39, 시 86:11 하, 딤후 2:22, 딤펢 1:5.
 3.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사랑하기를 원하신다—시 42:1-2, 아 1:1-4, 고후 3:16, 살후 3:5, 찬송가 546 장, 547 장, 엡 6:24, 요 15:9-10, 21:15-17, 마 26:6-13, 요일 2:5.
 4.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평온하기를 원하신다—행 24:16, 요일 3:19-21, 히 10:22, 요일 1:7, 9, 딤펢 1:5, 빌 4:6-7, 골 3:13-15.
- I.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게 하시는 영의 계속적인 새롭게 하심으로 견고하게 되어 거룩함에 있어서 나무랄 데 없게 될 때 우리는 신성한 생명의 새로움을 지닌 새 예루살렘이 되어가고 신성한 본성의 거룩함을 지닌 거룩한 성이 되어간다—계 21:2, 요일 5:11-12, 벧후 1:4.
- II. 하나님은 그분의 법리적인 구속 안에서 우리를 그분 자신에게로 성별되도록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피로 위치에 있어서 거룩하게 만드셨을 뿐 아니라, 그분의 유기적인 구원 안에서 우리를 그분 자신으로 적시도록 그분 자신의 거룩한 본성으로 기질적으로 거룩하게 하고 계신다—히 13:12, 10:29, 롬 6:19, 22, 엡 5:26, 살전 5:23-24.**
- A.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기질적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신성하게 ‘아들화’ 하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 우리가 그분의 표현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의 신격에서가 아니라 그분의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엡 1:4-5, 히 2:10-11.
 - B.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의 본질에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어 우리를 본성에 있어서 그분과 온통 똑같이 만드신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분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완전히 온전하게 보존하신다—살전 5:23.
 1. 양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보존하신다—즉 그분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게 지키신다.
 2.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지만, 우리는 성령의 적심 안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지킴으로 보존되도록, 솔선하여 그분의 운행에 동역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12-24 절.
 - C. 우리의 영을 거룩하게 하심 안에 보존하도록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을 훈련하여 우리의 영을 살아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1. 우리의 영을 보존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영을 훈련하여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우리의 영을 살아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데 실패한다면 우리는 죽어가는 상황에 있게 될 것이다.
 - a.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이다. 우리의 영을 보존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우리의 영을 살아 있게 유지하고 죽음에서 끌어내는 것이다—16-18 절.
 - b. 우리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역하여, 영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분별되어야 한다—비교 민 6:6-8, 고후 5:4.
 - c.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통해야 한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무엇이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우리의 영 안에 있어야 한다—요 4:24, 롬 1:9, 빌 2:1.
 2. 우리의 영을 보존하려면 우리는 모든 더러움과 오염에서 영을 지켜야 한다—고후 7:1.
 3. 우리의 영을 보존하려면 반드시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하여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간직하도록 훈련해야 한다—행 24:16, 롬 9:1, 비교 8:16.
 4. 우리의 영을 보존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을 주의하여,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고 우리 영 안의 안식을 관심해야 한다—말 2:15-16, 롬 8:6, 고후 2:13.

- D. 우리의 혼을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 하나님과 동역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정신적인 심장의 중요한 세 ‘동맥’ —생각과 감정과 의지—을 막히지 않게 해야 한다—빌 2:2, 5, 1:8, 2:13.
1. 우리의 혼이 거룩하게 되려면 우리의 생각은 반드시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의 생각이 되어야 하고(롬 12:2), 우리의 감정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동되고 적셔져야 하며(엡 3:17, 19), 우리의 의지는 반드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정복되고 부활한 그리스도로 주입되어야 하고(빌 2:13, 비교 야 4:4 상, 7:4 상),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온 존재로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막 12:30).
 2. 우리의 정신적인 심장의 중요한 세 동맥의 막힌 것을 뚫는 길은 주님께 철저히 자백하는 것이다. 우리는 한동안 주님과 함께 머물며, 우리를 빛 안으로 온전히 이끌어주시기를 주님께 구하고, 주님이 드러내시는 빛 가운데서 우리의 결함과 실패와 잘못과 실수와 과오와 죄들을 자백해야 한다—요일 1:5-9.
 - a. 우리의 생각의 동맥에 막힌 것을 뚫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 안에 있는 최악된 것을 낱알이 자백해야 한다.
 - b. 우리의 감정의 동맥에 막힌 것을 뚫으려면 우리는 우리가 타고난 방식으로, 심지어 육체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표현한 것을 자백하고, 또한 여러 경우에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을 미워하고, 우리가 미워해야 할 것을 사랑한 것을 자백해야 한다.
 - c. 우리의 의지의 동맥에 막힌 것을 뚫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 안에 있는 거역의 세균들을 자백해야 한다.
 - d. 우리가 우리의 정신적인 심장의 중요한 세 동맥에 막힌 것을 뚫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는 우리의 온 존재가 살아 있게 되고 매우 건강한 상태에 있다는 느낌을 가질 것이다.
- E.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보존하려면 우리는 교회생활을 위해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반드시 우리의 몸을 그분께 드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수행하기 위해 몸의 생활을 실행해야 한다—롬 12:1-2, 살전 4:4, 5:18.
1. 우리의 타락된 몸인 육체는 사탄과 죄와 죽음의 ‘집회소’이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의 ‘집회소’인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성령의 성전이다—롬 6:6, 12, 14, 7:11, 24, 고전 6:15, 19.
 2. 우리의 몸을 보존하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20 절.
 3. 우리의 몸을 보존하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것이다—빌 1:20.
 4. 우리의 몸을 보존하기 위해 우리는 결코 우리의 혼, 우리의 옛사람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죄의 몸이 할 일을 잃고 실직할 것이다—롬 6:6.
 5. 우리의 몸을 보존하기 위해 우리는 결코 우리의 몸을 어떤 최악된 것에도 드리지 말고, 우리 자신을 노예로서 의에게 드리고 우리의 지체들을 의의 무기로 드러야 한다—13, 18-19, 22 절, 단 5:23.
 - a.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고, 각자 거룩하게 됨과 존귀하게 됨으로써 자기 자신의 그릇을 지킬 줄 알아야 하며”—살전 4:3-4.
 - b. 사람들이 정욕에 빠지는 기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5 절.
 6. 우리의 몸을 보존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몸을 쳐서 노예로 삼아, 거룩한 성이 되는 우리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야 한다—고전 9:27, 계 21:2.